

고흥군, '섬섬 걸을래' 공모 선정... 섬 관광 본격화

연흥도, 예술·해양경관 활용한 감성 힐링 관광 기대



연흥도 바다 전경과 체류형 관광지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6 섬섬 걸을래' 공모사업 대상지로 연흥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섬섬 걸을래' 사업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섬 걷기 여행과 지역 체류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섬 관광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섬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프로그램 구성, 지역 특화성, 교통·숙박 연계성, 관광 활성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고흥군은 연흥도의 예술성과 해양경관을 활용한 걷기 중심의 감성형 체류 관광 콘텐츠와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확장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유빈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성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 지침에 따라 보성군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방식, 사용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차량 연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허용되며, 해당 가맹은 9월 1일 자동 해지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만12세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예방접종 실시

해남군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 청소년에서 만 12세(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HPV는 성별에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과 구인두암의 70%가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올해부터 만12세 남성 청소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HPV 예방접종을 통해 향후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실시되며, 접종 대상자(2014년생 남성청소년)는 보건기관 및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HPV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HPV는 성별 구분 없이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통한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마음안심버스 운영 호평

장흥군, '마음비움과 채움' 군민 심리 지원 본격 운영

진도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도읍 엘에이치(LH)공공실버주택에서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 투입된 '마음안심버스' 내부에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검진 기계가 장착되어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이날 현장에서는 버스에 탑재된 뇌파, 맥파 측정 장비를 활용해 주민 34명의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전문 검진 기기를 활용한 우울증 검사를 병행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군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최근 지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음비움과 채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감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산모, 다문화 가족, 취약계층 대응 인력 등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일원에서 오는 10월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연계해 ▲정신건강 예방교육 ▲산림치유 ▲해먹 체험 ▲음니핏(우울, 스트레스 검사)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바쁜 일상으로 지친 군민들이 자신을 돌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노라조'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완도해경 노라조 구명조끼 생활화 캠페인 진행 모습

/완도해경 정책 홍보실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최근 완도항 일원에서 국민들의 해양 안전의식 제고와 구명조끼 생활화를 위해 인기 가수 '노라조'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해양활동 시기를 앞두고 연안·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완도해경과 노라조는 "구명조끼 생명조끼", "구명조끼 입고 소중한 생명 지켜요" 등의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현장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특유의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라조는 캠페인 현장에서 안전 메시지 전달에 참여하여 해양 안전문

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완도해경은 최근 연안사고와 해상 추락사고의 상당수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임을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비"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어 "연안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